

DISCLAIMER: This file was created by a non-Korean speaker and may contain errors of typography, transcription or spelling. Any corrections would be welcome.

| # | Performer | Song Title | Composer (s) | Year |
|----|----------------------------|---------------------------|--------------|------|
| 1 | 최남욱 | I LOVE YOU | 하해룡/고성진 | 1993 |
| 2 | DJ. DOC | 다이어트 | 이승호 | 1995 |
| 3 | 박준규 | 나의 너 | 박성운/이용삼 | 1995 |
| 4 | 이주원 | 사랑할 수는 없는지 | 박창학/손무현 | 1992 |
| 5 | 푸른하늘 (Blue Sky) | 구속받기 싫어 | 유영석 | 1992 |
| 6 | 박정운 | 그대와 함께 (꿈) | 박정운 | 1991 |
| 7 | 잠 (Zam) | 18 번가의 비밀 | 조진호 | 1993 |
| 8 | 아기천사 | 너에게만 | 이성욱/원경 | 1991 |
| 9 | 김준선 | 그말은 말아 줘 | 김준선 | 1992 |
| 10 | 박남정 | 사랑할 때가 됐나봐 | 함경문/박남정 | 1992 |
| 11 | 박정운 | 나그네 | 박정운 | 1992 |
| 12 | 최남욱 | 꿈속에서 | 최남욱/유유진 | 1993 |
| 13 | 이현우 | 짧은 만남 | 이현우/김홍순 | 1991 |
| 14 | 키키 (Kiky) | 아이들에게 | 최창원/곽윤중 | 1994 |
| 15 | 박정운 | 알수가 없어 | 박정운 | 1991 |
| 16 | 심신 | 오직 하나뿐인 그대 | 박건호/유영선 | 1990 |
| 17 | 최남욱 | 잃어버린 나의모습찾아 | 유유진/최남욱 | 1993 |
| 18 | 김성재 | 말하자면 | 이현도 | 1995 |
| 19 | 김준선 | 이별을 느낄때 | 김준선 | 1992 |
| 20 | 김현철 | 오늘 이 밤이 | 김현철 | 1993 |
| 21 | Az (애즈) | 대쉬 (DASH) | 권오범/서해미/어재이 | 2004 |
| 22 | 최남욱 | 예전처럼 | 하해룡/고성진 | 1993 |
| 23 | 강지훈 | 사랑연습 | 송재준 | 1991 |
| 24 | 키키 (Kiky) | 다른 모습 | 강인봉/곽윤찬/곽윤중 | 1994 |
| 25 | 박정운 | 사랑을 했던거야 (... 먼 훗날에) | 박정운 | 1993 |
| 26 | 푸른하늘 (Blue Sky) | 그녀의 전화벨 II | 유영석 | 1990 |
| 27 | 신승훈 | 로미오 & 줄리엣 | 신승훈 | 1993 |
| 28 | 박정운 | 솔직히 말하자면 | 김수옥/박정운 | 1993 |
| 29 | 전영록 | 나의 길을 찾아서 | 이건희/이범희 | 1982 |
| 30 | 강지훈 | 가짓을 말한건 아니야 | 재정은/유성연 | 1991 |
| 31 | 이정현 | 그 누구보다 더 | 이정현 | 1988 |
| 32 | 강지훈 | 가면무도회 | 강지훈/박광현 | 1991 |
| 33 | The [k:ul] (쿨) | AM0432 | 이제희/김선규 | 1994 |
| 34 | 노이즈 (Noise) | 상상속의 너 | 김창환 | 1995 |
| 35 | 엑시즈 | 어둠속으로 | 오창훈/정성현 | 1995 |
| 36 | 손지창 with 유정연 | 세상 모든이에게 | 박준배/유정연 | 1992 |
| 37 | 이정현 | 사진 속의 이야기 | 이정현 | 1988 |
| 38 | 최남욱 | 멀어진그대 | 하해룡/고성진 | 1993 |
| 39 | 김원준 | 너 없는 동안 | 김원준 | 1994 |
| 40 | 김현철 | 결혼 x (이른나이 - 늦은나이) = 힘든나이 | 김현철/김현철 | 1993 |
| 41 | 김민우 | 부탁해 | 하광훈/박주연 | 1990 |
| 42 | 박정운 | 말해주오 | 박정운 | 1991 |
| 43 | 이정현 | 제시카 | 이건우/이정현 | 1988 |
| 44 | 김준선 | 예감 좋은날 | 김준선 | 1992 |
| 45 | 전영록 | 지나간 시절의 연가 | 이건희/이범희 | 1982 |
| 46 | 서태지와 아이들 (Seotaiji & Boys) | 내 모든것 | 서태지 | 1992 |
| 47 | 키키 (Kiky) | 삶에 관하여 | 강인봉 | 1994 |
| 48 | 김민우 | 입영열자안에서 | 윤상/박주연 | 1990 |
| 49 | 손지창 | 지워버린 편지 | 박준배/유정연 | 1992 |
| 50 | 이현우 | 우리 (FOLLOW ME) | 이현우/김홍순 | 1991 |
| 51 | 전영록 | 마지막 손길 | 이건희/이범희 | 1982 |
| 52 | 무한개도 | 여름이야기 | 신해철/삼재홍 | 1989 |
| 53 | 노이즈 (Noise) | 너에게 원한건 | 홍종구/천성일 | 1992 |
| 54 | 박남정 | 예전에는 | 송광호 | 1992 |
| 55 | 최남욱 | 나의꿈들 | 신윤철 | 1993 |
| 56 | 이주원 | 아껴둔 사랑을 위해 | 박주연/손무현 | 1992 |
| 57 | 강지훈 | MYSTERY WOMAN | 송재준 | 1991 |
| 58 | 이승철 | 방향 | 이승철/김홍철 | 1992 |
| 59 | 강지훈 | 술취한 비둘기 | 송재준/강지훈 | 1993 |
| 60 | 이현우 | 홍도야 울지마라 | 이서구/김준영 | 1991 |
| 61 | The Blue (더 블루) | 동화속으로 | 서영진 | 1992 |
| 62 | 김범룡 | 그 순간 | 김범룡 | 1985 |
| 63 | 신승훈 | 어긋난 오해 | 김창환/천성일 | 1994 |
| 65 | 이정석 | 젖은 날개 | 박건호/계동균 | 1987 |
| 66 | 이승환 |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 오태호 | 1991 |
| 68 | 김현식 | 사랑 사랑 사랑 | 김현식 | 1991 |

[01] 최남옥 - I LOVE YOU (하해룡/고성진)

SPDR-345.03 1993 9301-532

흐르는 음악 사이로 시간은 멈춰지고
내결으로 다가온 그녀의 모습 속에서
마음속 사랑을 말하고 싶어 I love you

그녀와 나만 남아서 보내는 이 시간은
달콤했던 꿈처럼 지나는 줄도 모르고
그녀의 눈빛만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렇게 기억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그대 흐르는 불빛 속에
사랑해요 그대 멈춰진 시간 속에
사랑해요

[02] DJ. DOC - 다이어트 (이승호)

DWTS-0031.07 1995 9505-3800

미니스커트에 쪽쪽빠진 날씬한 여자들 싫어하는 남자들이
이 세상에 어딴 너 정도 살찐건 보기에도 괜찮아
포동포동 탐스럽고 귀엽잖아 그렇게 다이어트
한답시고 물만 먹다간 결국 얻는 건 빈혈에 속쓰린 위장병 피가
되고 살이되는 찌개백반 너 지금 배고프지

하지말아라 하지말아라 귀찮지 않니
하지말아줘 하지말아줘 제발 부탁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니가 더 좋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널 보여줘

차라리 굶지 말고 운동을 시작해봐 여기저기 모델사진 붙여놓지 말고 나를 만날 수 없을만큼
굶을바에안 차라리 만날 수 있는 똥보가 낫겠어
너는 도대체 알고나 있는거야 우리 사랑만들기 아직 멀었는데 다이어트 그거 정말 한심해
빨리나와 피자 사줄께

지우려해도 지우려해도 지울수 없어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건 너의 그 마음
그렇게라도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면
내게 차라리 내게 차라리 떠난다해

[03] 박준규 - 나의 너 (박성운/이용상)

SD 3022.051995

환하게 웃음 짓던 그 얼굴 세련된 모습의 너를
그날 처음 만나게 된 건 정말 운명이었을 꺼야
내게 멈춰있던 너의 그 시선 때문인지

너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난 네게 말을 건넸었지
그런 내 마음을 넌 모두 받아주었어
우리의 만남은 그냥 그렇게 시작했던 거야

이젠 정말 후회없는 거야
모두가 날 떠난다 해도
네가 내 곁에 서있는 한 영원토록 그 끝까지
나는 언제까지라도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눈부신 나만의 너만을 이 세상 저 끝까지 따라서

난 너를 알게 되면서부터 친구들도 멀리하며
너만을 아는 너만의 바보가 어느새 되었지
때로는 너와 큰소리로 다투기도 했지만

너와의 이별은 상상도 할수가 없는 걸 난 알아
오늘도 난 너를 만날 수가 있다는
기대감 속에 하를 보냈지 너를 사랑해

[04] 이주원 - 사랑할 수는 없는지 (박창학/손무현)

JLS-1202523.08 1992 9211-15423

또 다시 나를 향한 걱정스러운 그 눈빛
언제나 나를 보면 불안해지는 걸까

널 좋아하는 건 알지만 넌 나를 몹시도 힘들게 해
나 또한 나대로 하고픈 일들이 있는 걸

눈앞에 있는 대로 내 모습 이해해 주렴
아직도 모르겠니 날 그냥 내버려 둬

언제나 너에게 원하는 건 내가 볼 수 있는 너의 모습
난 너를 붙잡아 두기를 바라진 않았어

조금 더 다가서는 것을 너는 피하려만 하는데
너에게 보인 그대로를 사랑할 수는 없는지

눈앞에 있는 대로 내 모습 이해해 주렴
아직도 모르겠니 날 그냥 내버려 둬

언제나 너에게 원하는 건 내가 볼 수 있는 너의 모습
난 너를 붙잡아 두기를 바라진 않았어

조금 더 다가서는 것을 너는 피하려만 하는데

[05] 푸른하늘 (Blue Sky) - 구속받기 싫어 (유영석)

VIP-20148.09 1992

바라보는 너의 눈빛
그 속엔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바람들
그 거짓 그 소망 웅크려버리게 만든
벽찬 일들로 가득차 있는걸
내게 기쁨으로 다가와 나의 마음 모두를 채워줄 수 있는 건
구속 속에 피어난 억지스런 자유 아닌 내가 선택한 나만의 개성인걸
흐름따라 느낌따라 그런대로 살아가길 바랄 수도 있다 하겠지만
그저 아무런 불평 없다해도 내겐 진실한 의미가 없는거야
Go!

다가올 날들은 모두가 나의 의식 속에 있어
나만이 펼쳐갈 작지만 소중한 아름다운 날
이제는 더 이상 구속이란 말은 원하지 않아
내가 가는 길에 상관은 이제 필요없어
그대로 가는 곳을 지켜만 보았으면 단지 나를 깊이 믿어 봐
그대가 내게 원하는 건 알고 있지만 결국에 넌 내가 아냐
어쩌면은 느낄 수도 있을거야 너의 말이 옳고 내가 아닌 것을
하지만 나를 진정 풍요롭게 하는 것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닌거야
말로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 그건 너무 유치하고 그건 너무 우습잖아
그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뜻한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거야
Go!

시간은 흐르고 어쩔 수 없이 나도 흐르겠지만
잡을 수 없다고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자리이고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넓혀가야 하지 그대로 나의 모습 지켜만 보았으면
단지 작은 믿음을 지녀 그대가 내게 원하는 건 알고 있지만
결국에 넌 내가 아냐 당신이 못다했던 일들을
억지스레 나에게 강요하려들지 말아줘요 나는 나 또 너는 너 우린 언제나 그냥 그런
Go!

그대로 가는 곳을 지켜만 보았으면 단지 나를 깊이 믿어봐
그대가 내게 원하는 건 알고 있지만 결국에 넌 내가 아냐
날 바라보는 너의 눈빛 그 속엔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바람들
그 거짓 그 소망 웅크려버리게 만든 벽찬 일들로 가득차 있는걸
흐름따라 느낌따라 그런대로 살아가길 바랄수도 있다 하겠지만
그저 아무런 불평 없다해도 내게는 의미 하나 없어

[06] 박정운 - 그대와 함께 (꿈) (박정운)

SRB-0269.08 1991 9011-10424

말없이 나의 걸을 지나쳐 가는 그대 뒷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줍 듯 내게 안긴 그대 모습을
아무도 몰래 그려 보았네 노을 빛 곱게 물든 저녁하늘을 그대와 함께 다정히 바라봤으면...

낙엽 쌓여가는 가을 저녁 길을 그대와 함께 끝없이 걸어 봤으면...

그대를 사랑한단 그 한마디가 그대여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그대여 고개 돌려 나를 보아요

나에게 필요한 건 그대 사랑뿐(그대의 사랑)

비오는 새벽길 우산도 없이 그대와 함께 끝없이 걸어봤으면...

흰 눈이 내려오는 겨울 밤길을 그대와 함께 다정히 걸어봤으면...

[07] 잼 (Zam) - 18 번가의 비밀 (조진호)

JLS-1202532.05 1993 9302-1124

끝없는 어둠 속을 천천히 걷고 있어
어디서 본듯한 야릇한 느낌이야
거리는 비에젖어 싸늘함 더 해지고
바람은 얼어버린 내 어깨를 스쳐가네
ZAM 예 ZAM

저 멀리 다가오는 두 그림자의 모습
아무런 표정없이 내 앞을 스쳐지나
또 다른 어둠으로 조용히 사라지자
갑자기 들려오는 여자의 비명소리
ZAM 예 ZAM

어떡해야 하나 그건 나와 아무 상관 없는 일이야
어떡해야 하나 돌아보지 말아

Annihilating rhythm

어째튼 이 거리를 벗어나야만 했어
무작정 어디든지 가야만 했었지
또 다시 다가오는 적막한 느낌속에
뒤돌아 바라보니 나를 보는 두 그림자
ZAM 예 ZAM

어떡해야 하나 나는 지금 위험에 빠진듯한데

어떡해야 하나 대답할 수 없어
어떡해야 하나 그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어떡해야 하나 돌아보지 말아
어떡해야 하나 나는 지금 위험에 빠진듯한데
어떡해야 하나 대답할 수 없어

[08] 아기천사 - 너에게만 (이성욱/원경)

ALS-1877.02 1991 9109-11687

너 이젠 내 품에 안길 순 없니 썩스러운 표정을 짓지는 말아
또 다시 내 품에 안겨 준다면 우린 서로를 느낄 수 있을 거야
따뜻한 내 맘을 네게 전하러 애쓰고 있어 그런 내 맘 넌 아니 워 오 하지만 그저 그런
느낌만 중요한 거라 말하면 난 마냥 용길 잃어 버려 너 이젠 내 품에 안길 순 없니
썩스러운 표정을 짓지는 말아 또 다시 내 품에 안겨 준다면 우린 서로를 느낄 수 있을
거야 나는 너만을 의식할 뿐인데 사랑을 주고파 오로지 너에게만

(Rap)

I wanna hold you in my arms tonight
Like lovers dancing in moon light
Stars are shining oh so bright
Wanting you and me to be together
We've know each other for so long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Wanna share my whole life with you forever
Save some of your love for me

Hey baby are you still in doubt
Is my love too hard to take
Know that your tender lips and eyes
Never leave my sight
Don't be so cruel to me
Cause I know that you feel for me
My love for you is not a game
Has everything been just a lie

[09] 김준선 - 그말은 말아줘 (김준선)

SPDR-323.10 1992 9210-13753

희미한 가로등만 켜져 있는 이 한밤에 나만이 홀로 남아 너만을 생각하네
그대 내 맘을 받아 주오 하얀 이 밤에
그대 내게 웃음 지우며 나를 떠나려 하네
그대여 그 흔한 말 사랑한다 그 말은 안 해도 좋아
이제 그대 나를 다시 만날 수 없단 그 말은 말아줘
이제 그대 나를 다시 만날 수 없단 그 말은 말아줘

오 너무나 예쁜 너는 내 맘을 모를 거야
아마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진 않아

[10] 박남정 - 사랑할때가 됐나봐 (함경문/박남정)

OL-3250.09 1992 9204-3934

요즘 하루가 내겐 너무 길게만 느껴져
깊은 어둠이 오면 왠지 마음이 허전해 이젠
나도 누군가 사랑할 때가 됐나봐 내게
찾아오려나 정말 내게도 사랑이 그
어디 있을까 내가슴 채워줄 그대를 그대
그 뿐인거야 너무 힘들어 하지마
슬픈 기억이 날땐 잠시 창밖을 바라봐 오늘
비가 온다고 햇살이 떠난건 아냐 그대
그뿐인거야 쉽게 잊을순 없지만 영원한
사랑은 아픈 이별뒤에 오는 걸

[11] 박정운 - 나그네 (박정운)

SRB-0292.08 1992 9212-16138

내가 어릴적엔 하고픈 일도 많았었지
어느날 문득 깨어보니 이제 나 어른되어 있네.
그 옛날 생각하면 나는 모든걸 할 것 같아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바보, 허풍장이..
외롭다 느낄땐 소리쳐 노래 불러보네.
사람들 비웃듯이 나를 위 아래 쳐다보지만은.
그들은 모르고 있다네. 어차피 세상이란것은
자기에 뭇에 사는것을.. 혼자서 살아가는 것을..

시계 바늘 돌아가듯 어김없이 바쁘게만 돌아가는 세상속에,
조금만의 여유라도 찾으려고, 헤메이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나는야 꿈을 찾아서 길을 가는 나그네.
나는야 자유 찾아서 길을 떠나는 나그네

[12] 최남옥 - 꿈속에서 (최남옥/유유진)

SPDR-345.04 1993 9301-533

쏟아지는 빗속을 뛰어가는 것처럼
숨가쁘게 살아온 내 모습이 느껴질 땐
어린시절에 보았던 농화에서처럼 그렇게
푸른창공을 날으는 꿈을 꾸곤 하지
하얀 새사 되어 하늘을 훨훨 날아가고파
새 희망을 가득안고서 하늘을 훨훨 날아가고파 위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은
지쳤던 내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네
답답한 이 도시를 벗어나고 싶을 땐
새가 되어 날으는 꿈을 꾸지 그때마다

나를 더러다 주었지 내가 찾던 이성의 나라로
따뜻한 사랑이 숨쉬는 곳 위

쉽게 잊고 사는 지난날의 꿈들은
하나들 잠깨워서 새 되어 날아가네
높은 하늘 에서 내려다 본 모습은
지쳤던 내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네

[13] 이현우 - 짧은 만남 (이현우/김홍순)

SIS-910311.03 1991 9101-1995

아무런 생각 하질 말자 모두 지난 이야기
어제의 기억 잊어버려 돌이킬 수 없어
차라리 잘된 일인지 몰라 이젠 지쳐버렸어
우리는 서로 맞지 않잖아 너도 알듯이
우리의 이별은 서로가 원했던 거야 날 미워하지마

이제는 서로의 길을 걸어야지 하늘을 날르는 하얀새처럼
이제는 나만의 길을 걸어야지 바다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아무런 말도 하질말자 모두 지난 이야기
달콤한 너의 입맞춤도 난 잊기로 했어
사랑의 노래 들리지 않아 이젠 지쳐버렸어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 너도 알듯이
우리의 만남은 이렇게 쉽게 끝났지만 후회하지마

[14] 키키 (Kiky) - 아이들에게 (강인봉)

HC-200602.07 1994

아이들에게 길을 물으면 작은 손가락으로
굳어버린 겁은 빗깔을 음 가리키지
아이들에게 집을 물으면 예쁜 손가락으로
말라버린 회색 빗깔을 음 가리키지

오 - 아스팔트

아무런 표정도 없이 꽃한송이
피지 않는 검은 흙으로
우리들 고운 미움마저 묻어버렸나

[15] 박정운 - 알수가 없어 (박정운)

SRB-0269.07 1991 9011-10418

알수가 없어 도시 가득히 흐르는 불빛들을 나는 느낄수가 없어
어느새 이밤 나의 가슴은 그대가 바라보는 눈빛속에 흔들리고
알수가 없어 알수가 없어

언젠가 오래전부터 들어온것 같은 그대으 목소리에 내마음이 끌려도
이대로 나는 아직도 자신이 없어 그대가 내민 손을 원면하고 있지만
둘이서 멀어지는 그 모습에 나는 혼자 슬퍼져 이제 나 그대를 놓칠 것만 같아
그대가 발을 멈춰 돌아볼때 마주치는 눈빛에 이제 나 그대를 기다리고 있어

Tell me you love me why don't you wont me

그대... <>

다시 밤은 깊어 가고 있는데

[16] 심신 - 오직 하나뿐인 그대 (박건호/유영선)

SPDR-198.05 1990 9005-4092

그리움 두고서 가지는 마
나홀로 있으면 외로운데
그대의 얼굴을 바라다보며
정다운 얘기를 나눌래
어디서 오는지 알수는 없지만
사랑은 이렇게 달콤한 것

아쉬움 두고서 가지는 마
남겨진 시간이 너무 많아
내 인생 모두가 사라져가도
이 느낌 우리는 영원해
어디서 오는지 알수는 없지만
사랑은 언제나 황홀한것

그대여 그 마음속에 이대로 나를 담아둘 수 없는가
그대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

그대 오직 하나뿐인 그대

[17] 최남옥 - 잃어버린 나의모습찾아 (유유진/최남옥)

SPDR-345.06 1993 9301-535

분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어다론가
떠나가고 싶은 마음 가슴 속에 밀려드는
아쉬운 기억속에 잃었던 너의 꿈을 다시
찾을 수는 없을까

아무렇지 않은듯 웃어보여도 마음 속엔
왠지 모르는 그리움 의미 없이 흘러버린
지나간 시간 속에 잃었던 너의 꿈을 다시
찾을 수는 없을까

어두운 지난날의 아쉬움은 떨쳐버리고
가슴엔 새로운 바람을 안고서 떠나리
잃어버린 나의모습찾아

[18] 김성재 - 말하자면 (이현도)

YDC-1119.02 1995 9511-8420

앨범정보 가사오류신고

말하자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야
하지만 나는 말할수 없단 얘기야
하루가 또 지나도 난 항상 제자리에

너의 뒤에선 항상 너를 쳐다봐
너의 앞에선 항상 땅을 쳐다봐
넌 알지 못했니 어색하게 애써 외면을 했던 걸

우연히 스쳐 지날때마다
서로 반감게 지나쳐 갈때마다
넌 알지 못했니 너무나도 자주였던걸 말이야

그모든 순간들은 결코 우연들이 아니었어
사랑의 크기만큼이나 두려워하는 나의 바보같은 모습

[19] 김준선 - 이별을 느낄때 (김준선)

SPDR-323.02 1992 9210-13724

그대의 달콤했던 향기도 짝꿍 입맞춤의 느낌도
이제는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남은 건 쓸쓸한 한 조각의 기억
수많은 장미꽃을 보내고 매일 밤 너에게 전화를 걸어도

이제는 어색해져 버린 그대 남은 건 흩어진 그대의 미소
이별을 느낄 때 그대의 두 눈을 피하지도 바라볼 수도 없었던 그 밤에도
오늘은 또 눈물을 흘려도 이제는 그대를 잊고 싶어

(Rap) 그대의 달콤했던 향기도 짝꿍 입맞춤의 느낌도
너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보내고 매일 밤 너에게 전화를 걸어도

이제는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남은 건 쓸쓸한 한 조각의 기억

[20] 김현철 - 오늘 이 밤이 (김현철)

VIP-20167.06 1993

해가 넘어가는 이 작은 거리에도 사람들이 밀려오고 아
아 누군가를 찾고 희미한 음악에 모두 취하는듯 예
오 그대 휘황한 달빛 아래 그 꾸밈없는 웃음
꺼질 듯이 피어나는 이밤 끝도 없이 우릴 부르네
오, 오늘 이밤이 오늘 이밤이

그댄 나의 앞에 작은 꽃이어라 까만 눈동자에 내가 춤을 추네
아 사랑하오 내게 안긴 그대 예 오 그대 휘황한 달빛 아래 그 꾸밈없는 웃음
꺼질 듯이 피어나는 이밤 끝도 없이 우릴 부르네 오, 오늘 이밤이 오늘 이밤이

휘황한 달빛 아래 그 꾸밈없는 웃음 꺼질 듯이 피어나는 이밤
끝도 없이 우릴 부르네 오, 오늘 이밤이 오늘 이밤이

[21] Az (애즈) - 대쉬 (DASH) (권오범/서해미/어재이)

89704M.02 2004

We don't need no music
The song we're gonna do
We sing and dance and party down and then...

너의 마음 좀 여기다 뒤봐
너의 눈길 좀 여기를 봐줘
너의 마음 좀 여기다 뒤봐
너의 눈길 좀 여기를 예 -

그렇게 생각했지 아무런 느낌 없는 것 같은
너에게 무슨 말을 건네냐고 망설여 망설였어
그렇지만 이제 다시 마음을 다시 굳게 먹을
거야 널 두고 있는 생각같은 널 향한 DASH-DASH
하루 종일 생각했지 내가 뭘 부족한
지 고민에 고민을 했지 준수한 스타일 이 정
도면 된거 아냐 넌 뭐가 부족한지 쳐다도 보
질안네 하지만 나 역시 몰라 어떻게 여자의
마음잡아 볼수 있을까

생각처럼 쉽게 넌 오지를 앓고 그런 네가
내 맘 더욱 흔들어

도도해서 그런가 아니면 날 못 본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래 너도 나를 분명히 봤었어 그
랬기에 느낌에 니가 들어 왔었지 어쨌거나
오늘만은 널 향한 DASH-DASH

그 시간 그 거리에 이 시간 이 장소에 어김
없이 지나가는 널 말 걸러 했었지만 퇴짜 맞
을까 걱정이 돼 너도 날 봤을 꺼야 눈도 마
주쳤잖아 그때 난 눈을 돌렸고 못 본척 하면
서도 힐끔힐끔 널 쳐다봤지

생각처럼 쉽게 난 너를 가질 수 없고 그런
내가 난 정말 더욱 싫었어

[22] 최남옥 - 예전처럼 (하해룡/고성진)

SPDR-345.01 1993 9301-530

변해가는 세상속에서 나홀로 간직한 그대는
추억으로 남겨지고 말뚱하고 바라만보던
지난날 그마음 이제는 느낄 수 있을까
나도모르게 변해져만 가는 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말할 수 있는데

오오오 예전처럼 이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 나도 변해가는데
오오오 예전처럼 이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지난 일조차 내게 멀어지는데

[23] 강지훈 - 사랑연습 (송재준)

BDL-0020.09 1991 9110-12902

우리 처음에 들어서 만났을적에 나는 항상 너의 뒤에 서있었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언제나 스쳐지날 뿐이야

나는 너에게 하살 그런 생각을 사랑이라 말하긴 너무 싫지만
언제난 너는 웃으며 외면하며 돌아섰는데

그대 나를 사랑한다 말하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하나
다만 멀리서 바라보며 혼자만의 사랑연습을

사랑이라는 생각에 빠졌을 적에 너는 항상 나를 외면했지만
나는 그대를 잊지해 나는 이런 사랑연습을

[24] 키키 (Kiky) - 다른 모습 (강인봉/곽윤찬/곽윤중)

HC-200602.01 1994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지
이시간은 지루하기만 할뿐

단들만의 이런 공간도 이제 쓰라린 환상일뿐
결국 우린 마지막을 위해 만났어

어차피 너와 나는 다른 모습
서로 비슷하다고 착각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깨달았으니
후회없이 헤어져야만 하겠지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뒤에
언제나 함께라고 생각했는데

기억 속에 있는 서로의 모습 이제 지워버려야해
우린 서로에게 아픔과 즐거움을 같이 주었지
서를 위해 그만 만나는게 좋겠어
소중했던 우리들의 의미도
아무 가치도 없는 환상이 되고
특별한 느낌을 잃어버린채
우리가 아닌 너와 내가 되겠지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뒤에
언제나 함께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속에 있는 서로의 모습 이제 지워버려야해

[25] 박정운 - 사랑을 했던거야 (... 먼 훗날에) (박정운)

SD 3010.041993 9309-14961

나를 사랑했고 너를 사랑했어 그래 우린 사랑을 했던거야
외면할 수 없었던 서글픈 현실 속에서 그렇게
마음아파 했었지 눈물만 흘렸었지
지금 그 어디에 오 그 누구의 품에 지나간 우리사랑 찾으려 하고 있니
부드런 네 입술로 나만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했던 너였는데 말했던 너였는데

생각나니 지난날의 약속 작은 새끼손가락 걸며
영원히 아름답게 사랑하자 말하던 그때의 입맞춤과 그 약속을

너는 알고 있을까 너의 모든 것들로 나의 모든걸 다 사랑했듯이

너는 알고 있을까 나의 모든 것들은 너의 모든걸 다 사랑했다고

[26] 푸른하늘 (Blue Sky) - 그녀의 전화벨 II (유영석)

VIP-20107.07 1990 9006-5333

지금 내 몸은 지칠 대로 지쳐 그녀의 전화소리만
기다리는데 울리는 전화 수 없이 많아도 그녀의 목소린 아나
무슨 이유일까, 꼭 한다 던 전화, 집으로 걸어봐도
소식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 궁금한 마음에 내 맘은 더 지쳐만 가네
아무 말다툼 한 적도 없는데, 왜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것일까
무작정 앉아 기다리는 모습
내가 봐도 안타까울 뿐
어느새 또 날은 저물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생길 때쯤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

왜 이제 걸었냐는 물음에 놀리고 싶었다는 그 애의 말
하지만 아무말도 못했지 아마 널 사랑하나봐
이제는 다시 그런짓 말라는 내 말에 새콤한 웃음만 웃던 그녀
이제껏 기다린 시간들이 아깝지 않은건 왜일까
사랑하고 있느냐 그녀의 모습 귀여운 웃음 하나까지도
내일은 내가 전화를 걸어서 사랑한다고 말할거야

[27] 신승훈 - 로미오 & 줄리엣 (신승훈)

DYL-1020.03 1993 9303-3904

그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의 시작을 느꼈는데
한번도 내것이지 못했던 그대는 멀어져가네
그렇게 떠나가는 널 붙잡진 않았어 다시 돌아올 그대를 알기때문에
하지만 이젠 홀로 버려진 나 원하지 않은 이별을 해야만 했어
기억하고 있겠지 그대 나에게 했던말

나의 이름 로미오 너는 줄리엣 하지만 지금 우린
Just Like a 로미오 나 여기 서 있을께 줄리엣 너의 창문을 열어
로미오이별을 말하지마 줄리엣 너를 사랑해
Just Like a 로미오 줄리엣 로미오 줄리엣 Just Like a 로미오

[28] 박정운 - 솔직히 말하자면 (김수옥/박정운)

SD 3010.051993 9309-14962

짧은지마 반지 어깨위엔 까만 백을 메고
빨간입술 손가락엔 어느새 하얀 담배 연기
너에게 사랑을 말하진 못했어 비웃는 미소가 두려웠어

손님없는 옷가게 쇼윈도에 마네킹들처럼
(언제나) 야릇한 미소로 유혹하듯이 기다리겠지만 두려웠어

솔직히 말하자면 약간은 내마음 끌렸었지
날향해 웅크하는 눈 동자 무슨 뜻일까

아직은 아무런 어떤말 할 수 없지만
아직은 내마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기다려줘

[29] 전영록 - 나의 길을 찾아서 (이건희/이범희)

JLS-1201711.10 1982 8205-2194

바다야 날 울보라 말하지마
파도야 날 울보라 말하지마
송이 송이 피어난 꽃처럼
아침 햇살 어여쁜 갈매기
오늘도 저 수 평선을 가고있네
하늘은 왜이리 높을까
세상은 왜이리 넓을까
랄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 라라

그누구를 사랑한다고 했나
기다림을 품에 간직한 새야
바다야 날 울보라고 말하지마
파도야 날 울보라고 말하지마

[30] 강지훈 - 거짓을 말한건 아니야 (재정은/유성연)

BDL-0020.06 1991 9110-12272

눈을 떴을 때 넌 놀라하겠지 곁에 없을 내맘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지만 너에겐 더욱 큰 슬픔될테지

사랑을 믿고 살 수 없는 나 언제나 실패뿐이었으니
누군 사랑이 하기 싫겠니 나를 잊어줘

그순간에는 진실이었지 거짓을 말한건 아니야
순간의 길이가 다를뿐 누구나 사랑은 그런걸

나의 선택을 너또한 원했으니 나를 원망하지 않기를 바래
그어떤 것도 줄수 없는 나인걸 어쩔 너에게 오히려 잘된 일이야

헤픈 웃음으로 포장된 거리의 수많은 눈빛도
그 순간에는 진실이겠지 너와 나처럼

[31] 이정현 - 그 누구보다 더 (이정현)

JKG-7016.01 1988 8812-10681

그 언젠가 손을 잡고 바라 보던 Sun Set
그대 내 곁에 없으니 아픔답지 않아
깊어 가는 시간 속에 포근히 흐르던 Silence
바라만 보고 있어도 우린 좋았잖아

지금은 어디 어디로 그대 모습 가만히 다시 떠올리면 잊을 수 없어 그대를

별빛 찬란하게 수 놓았던 그 Sky Line
그대 내 곁에 없으니 아픔답지 않아
조그맣게 속삭이듯 그대가 부르던 Love Songs
아직도 내 귓가에는 들려 오는 듯 한데

그 누구보다 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
아무리 생각 해도 난 알 수 없어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어찌하여 다시 올 수 없는 거야

그 누구보다 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

그 누구보다 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
그 누구보다 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
그 누구보다 더~

[32] 강지훈 - 가면무도회 (강지훈/박광현)

BDL-0020.07 1991 9110-12273

어느해 겨울 초대받아 갔던 우연찮은 가면무도회 파티
현란한 불빛 한귀퉁이에서 작고 예쁜 소녀를 보았지

진한 풀빛 실루엣을 몸전체로 받고 서투른듯 춤을 추는 그녀
왜 이렇게 내마음은 설레여 오는지 더 이상 아무말도 하지 못한거야
은빛가면 뒤로 보인 고운 노의 두눈
사랑하고 싶은 너의 소리없는 미소
떨는 맘으로 너를 맴돌았지
음악속에 그냥 그렇게

[33] the [k:u1] (쿨) - AM0432 (이제희/김선규)

4509-97198.09 1994 9406-6935

어둠이 흠어진 초라한 새벽거리엔
나혼자 벽에 기대어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

(Rap)

겉으로 그렇게 얘기 하지만 난 이미 너의 마음을 알수가 있어
의미없이 다른 이를 바라보는 눈길처럼 일부러 나를 외면하지만
너의 일부가 되어버린 나의 마음을 넌 왜 그리 깨닫지 못했어.
너를 향해있는 나의 마음을 이젠 모두 다 내가 간직해

떨리는 내 입술에 떨어진 한숨만
나를 감싸주던 밤의 진한 향기

(Rap)

내 주위를 스쳐간 많은 사람들 난 네게 의미없는 존재가 아니야
하지만 넌 내게 떠나려 하고 잊으려고 헤메였었지.
내가 너를 담고있는 마음까지 내가 알고 있는 너의 사랑 얘기를
그대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걸까 내 사랑 아직도 깨닫지 못했나

이대로 밤이 새면 나는 떠날거야
새벽 안개속에 너를 남겨둔 채

[34] Noise (노이즈) - 상상속의 너 (김창환)

LC-1001.021995 9504-2331

나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했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도
지금 나와 같은 생각으~로 나의 모습들을 가끔씩 그려보는~지

이런 저런 상상속에 많은 시간들은 나를 외롭게 만들었지만
나는 기다렸어 그 날이 오기를

바로 오늘을 오늘 나는 우연히 널 보고 말았어 나의 상상속에 그리던 널
나의 눈이 너와 마주치던 그 순간
난 굳어버렸지 할 말도 잃어버린채
어떡해야 그대에게 말을 건넬까
나의 맘은 두근거렸지만
내게 슬쩍 눈길을 주며 웃는 그대를
이젠 사랑할 수 밖에 없어

너무 오랫동안 나는 기다렸어
나의 친구들은 애인이 있는~데~
나만 혼자라는 외로움~에
가끔 나는 내 자신을 미워했었지~만
그래 한번 참아 보는거야
어디까지 그대 기다려야 하는지
나의 인내심은 그대를 만났어

[35] 엑시즈 - 어둠속으로 (오창훈/정성현)

1995 9508-5727

어둠이 짙게 깔린다

지금 이 거리의 나는 작은 회오리바람에 실려 이리저리 뒹굴어 다니는 하얀 휴지조각이
되어본다 이제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의미를 둘수 없다 내게 남은건 그저 삭막한 어둠뿐
나를 지나치며 걱정해주는 듯한 눈길이 싫다 차라리 날 외면하길...

이 어둠이 나를 편안하게 만든다.

이제 난 가려한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의 어둠속으로...

너의 그 어떠한 말로도 이젠 (이제는)

내몸을 감싸고 있는 어둠을 (이제 나에게)

차라리 날 떠나간다고 말할해

지쳐버린 내겐 소용없는 애기들

차갑게 나를 바라보는 눈빛 (싸늘한)

어둠속 내몸을 식히는 달빛 (이젠 나를)

쓰러져가는데로 날 내버려둬

이미 끝난거야 돌아보지

하지만 아직 나르를 괴롭히는

너의 따스했던 눈길을 아직도

잊을수 없어

지울수 없어 이젠 떠나갔지만

돌아보지마 이제는

초라해지는 내모습

아름다웠어 소중했지만

이제는 모두 버리고 저 어둠속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는 밤이 다시 찾아오면 초라한 내모습

보이지가 않아 좋지 모두가 나를 외면해도 너만은 나의 곁에서

(이제는 모두다 끝난거야) 돌아 보지마

하지만 아직 나를 괴롭히는

너의 따스했던 눈길을 아직도 (난 영원히)

잊을 수 없어 (난)

지울 수 없어 이젠 떠나 갔지만

돌아 보짐마 이제는 (나의 모습)

초라해지는 내모습 (그 모두가)

아름다웠어 (내겐) 소중했지만

이제는 모두 버리고 저 어둠속으로

아름다웠어 소중했지만

이제는 모두 버리고 저 어둠속으로

[36] 손지창 with 유정연 - 세상 모든이에게 (박준배/유정연)

YERD-7017.08 1992 9201-933

저 하늘에 새겨놓은 너의 여린 모습이 별이 되어 비치고
희미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만
난 오늘도 네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오직 너만을 사랑하는 거야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언제나처럼나의 모든 것을 밝혀 주지만
그대 곁에 갈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작은 별을 닮은 그대여

[37] 이정현 - 사진 속의 이야기 (이정현)

JKG-7016.02 1988 8812-10686

Rainy night 비 내리던 그 밤에
나만의 그대는 떠나가고
그대의 마음을 난 알 수 없어
나 홀로 거리를 걷고 있었네
허전한 나의 어지러운 마음에
아련히 떠오르는 기억은
소리 없이 다가올 것 같은
해맑은 미소뿐이었네
이젠 다시 올 순 없을 거야
그대와 나의 수많은 시간들
언제라도 다시 올 순 없을까
잊지 못할 잊지 못할 그대
날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대
사진 속에 미소를 짓고 있지만
여기 다시 가까이 내 곁에 있다면
차가운 비도 포근할 거야 이젠 다시 올 순 없을 거야
그대와 나의 수많은 시간들
언제라도 다시 올 순 없을까
잊지 못할 잊지 못할 그대
날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대
사진 속에 미소를 짓고 있지만
여기 다시 가까이 내 곁에 있다면
차가운 비도 포근할 거야 다 지나 버린 일이라고 해도
아주 잊어 버릴 순 없으니까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면
떠오는 빛 바랜 사진 속의 이야기
빛 바랜 사진 속의 이야기

[38] 최남옥 - 멀어진그대 (하해룡/고성진)

SPDR-345.02 1993 9301-531

우리 처음 만난 그때를 너는 기억하는지
수많은 사람 속에 보이는 건 그대뿐

행복했던 지난 시간들 다시 생각해봐도
하지만 모두 지워야 하름다운 추억들

이젠 멀어진 그대 모습들 희미한 기억마저
사라져가고 내게 남은 건 아픈 상처뿐
이제는 잊어야 할 사랑했던 그대

[39] 김원준 - 너 없는 동안 (김원준)

OCK-0031.02 1994 9405-6053

아무런 기대없이 나간 우리 첫 만남은
너무 쉽게 운명처럼 빨리 이뤄졌지
언제부턴가 가끔 네가 싫증나서 나도
모르게 한 눈을 팔고 싶을 때도 있었지~

잘 빠진 몸매와 외모,
너보다 더 잘난여자
찾길 원하는 건 사실이야
난 하지만 욕심일뿐,
내 주제를 몰랐던 건
단지 나의 착각이었어 (야이야히야이야)

너의 갖춰진 조건 누군가에게 뺏기긴 싫어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을 세워줘 (야이야히야이야)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흔한 연인은 안될게
너 없는 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어...

[40] 김현철 - 결혼 x (이른나이 - 늦은나이) = 힘든나이 (김현철/김현철)

VIP-20167.06 1993

결혼하긴 아직도 이른 나이
그게 나이고 난 그 때문에 너무*2 우울해
결혼하긴 혹시나 늦은 나이
그게 너이고 넌 그 때문에 고독한지도 몰라
둘아 함께 사는 말고도 복잡한 이유가 있는 까닭에
결혼하긴 아직 이룰까 혹시 늦을까

한참을 고민해 봤지만 난 여전히 모르겠어
결혼이란 다 그런가. 결혼하긴 너무나 힘든 사이
그게 우리이고 오- 그 때문에 너무*2 속상해

[41] 김민우 - 부탁해 (하광훈/박주연)

SIS-900304.08 1990 9002-611

아직도 너를 잊지 못할 거라고 그러한 착각하지마 너 또한 변했듯이
나도 이렇게 변한다는 걸 몰랐니 지금의 이 순간도 후회는 안 해 후회를 한다는 것은
나를 지탱해 줬던 내 자존심에 관한 문제니까 흐르는 너의 눈물은
그저 이별에 대한 작은 의식일 뿐 내 맘을 돌려놓기엔
얼마나 무력한지 이젠 또 다시 너를
또 다시 만나는 일들이 없기를 부탁해
흐르는 너의 눈물은

[42] 박정운 - 말해주오 (박정운)

SRB-0269.03 1991 9011-10419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눈빛속에는
과연 무슨 말을 감추고 있는걸까
바람결에 시를 적어 나의 마음 전해봐도
살며시 미소지며 아무말도 하진 않네
오늘도 보고싶은 너의 처음 그 모습이
또 다시 나의 머리에 맴도는데
이제는 정말 너를 잊어야하나
외로운 별빛만이 걸린 이밤엔

말해주오 말해주오
그대 나를 아직 사랑하고 있다고
비가 오는 이 골목에서 홀로 서서
잊으려 애써보는 너의 그 모습

[43] 이정현 - 제시카 (이건우/이정현)

JKG-7016.07 1988 8812-10689

언제나 멀리 바라보던 그대를 만날 수 있을까
언젠가 그대 나를 보고 생긱이 웃어 주던 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걸까 그저 지나가는
미소였나 빨간 그 입술로 말해 주오
온 종일 비가 내리던 날 우연히 그대를 만나서
까만 우산 속에 들어서 빗속을 마냥 거닐 때
끊이지 않는 빗소리처럼 귓가에 속삭이며 하는
말 나만을 오직 사랑한다고 내 맘속의 제시카 잊을 수 없는 그대의 모습
다시 돌아와 내 곁으로 내 가슴의 모든 걱정 지워 버리게 해
내 맘속의 제시카 다시 떠오른 그대의 미소
차가운 서쪽 바람 되어 꿈속에서 헤매이는 나를 깨우는 제시카
이제는 잊어야지 하고 창문을 닫아 보아도
포근한 그대 숨결은 내 가슴에 남아 있어
눈물에 어리는 그대 모습 다시 들려 오는 웃음소리
그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44] 김준선 - 예감 좋은날 (김준선)

SPDR-323.07 1992 9210-13729

비오는 날에 그대 찾아서
우산도 없이 길을 걸었네
무던히 복잡해진 거리
그대가 있을것같아
비에 젖은 내가 산 꽃송이
그대를 닮은것 같아서
그대는 언제나 귀여운
이 꽃을 닮은것같아

어쩌면 그대 나를 보고
사랑한단말 할지도 몰라
오늘은 그냥 나도 웬지
사랑한단말 하고 싶어
오늘은 나도 모르게 예감좋은날

그대가 날 부르는 목소리
그대는 나를 보고 웃고 있었네
그대의 미소는 언제나
내 맘을 기쁘게 하네

어쩌면 그대 나를 보고
사랑한단말 할지도 몰라
오늘은 그냥 나도 웬지
사랑한단말 하고 싶어
오늘은 나도 모르게 예감좋은날
오늘은 나도 모르게 예감좋은날-

[45] 전영록 - 지나간 시절의 연가 ('82 서울 국제가요제 금상곡)
(이건희/이범희)

JLS-1201711.01 1982 8205-2215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나홀로 쓸쓸히 서있네
지금은 너무도 많은 수많은 얘기들
사랑이 눈처럼 쌓일때
난정말 외로움 몰랐네
세월이 데려간 사람은 그 어디에 있을까
잃어버린 날을 그날을 내게 다시 돌려준다며
그대 부르던 슬픔 노래는 없으리라
저바람도 나를 아는가
우리들의 사랑노래를
이젠 가야지 발길
닿는곳으로
사랑이 눈처럼 쌓일때
난정말 외로움 몰랐네
세월이 데려간 사람은 그 어디에 있을까
잃어버린 날을 그날을 내게 다시 돌려준다며
그대 부르던 슬픔 노래는 없으리라
저바람도 나를 아는가
우리들의 사랑노래를
이젠 가야지 발길 닿는곳으로

[46] 서태지와 아이들 (Seotaiji & Boys) - 내 모든것 (서태지)

BDL-0023.06 1992 9203-2800

그렇게도 힘들었던 수많은 사연들을
이제 사랑으로 그대앞에 나의 모습 보이리라

나의 진실을 말해주고파 하지만
나는 네 흐르는 눈물을 차마 붙순 없어
내 모든걸 당신께 말해주고 싶어 작은 마음 드리리라
나는 항상 그대의 마음 곁에 있어 소중한건 너 이기에
난 요 언제나 너에게 말은 하지 못하고
그대 눈빛이 마주칠땐 고개 돌리며 다른 애길하네
내 요 마음을 주고 싶어도 줄수 없는

나의 이 아픈 가슴을 너는 아는지
나의 진실을 이해하는지 기타
소리없이 울다지친 슬픈 내모습을 그저 바라보는
그대 앞에 나의 모습 보이리라

애써 미소를 내게 보이는 슬픈 너의 눈빛을
이제는 다시 바라볼순 없어

[47] 키키 (Kiky) - 삶에 관하여 (강인봉)

HC-200602.02 1994

거리엘 나서 봐도
혼자서 생각해 봐도
이렇게 알수 없는 건
내가 아직 어린 탓이겠지
시끄러운 세상 일들
이젠 듣기도 싫어
이렇게 후회하는 건
내게 남은 미련 때문이겠지
어지러운 세상 일들
이젠 보기도 싫어
이런 마음은
그대 떠나간 때문이겠지
후렴. 오월의 눈부신 태양 아래
반짝이는 맑은 샘물처럼
그렇게 그렇게 아름답던
그 모습 이제는 사라져.. 갔나
지금은 내게 아픔만 남아
난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 인가

[48] 김민우 - 입영열자안에서 (윤상/박주연)

SIS-900304.02 1990 9002-607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었어
손 흔드는 사람들 속에 그댈 남겨두긴 싫어
삼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댄 나를 잊을까
기다리지 말라고 한건 미안했기 때문이야
그 곳의 생활들이 낯설고 힘들어
그대를 그리워 하기 전에 잠들지도 모르지만
어느 날 그대 편질 받는다면
며칠 동안 나는 잠도 못자겠지
이런 생각만으로 눈물 떨구네 내 손에 꼭 쥔
그대 사진 위로
삼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댄 나를 잊을까
기다리지 말라고 한건 미안했기 때문이야
그 곳의 생활들이 낯설고 힘들어
그대를 그리워 하기 전에 잠들지도 모르지만
어느 날 그대 편질 받는다면
며칠 동안 나는 잠도 못자겠지
이런 생각만으로 눈물 떨구네 내 손에 꼭 쥔
그대 사진 위로 이런 생각만으로
눈물 떨구네 내 손에 꼭 쥔 그대 사진 위로

[49] 손지창 - 지워버린 편지 (박준배/유정연)

YERD-7017.02 1992 9201-838

노을진 붉은 하늘을 바라만 보다가 그대 생각에 써 내려간 편지
사랑한다 말하기엔 수줍은 내 마음 이런저런 얘기로 대신해 보았지
어느틈엔가 쓰다만 편지는 쌓이고 나는 조금씩 지쳐만 가는데
난 두려워 너의 마음 알 수 없어
어떤 말을 해야하나 답답해 내 사랑을 네게 전하고 싶은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쓰지 못한 채 어느새 아침이 오네

[50] 이현우 - 우리 (FOLLOW ME) (이현우/김홍순)

SIS-910311.09 1991 9101-1996

김홍순 편곡 우리가 사랑하는 회색빛 이거리는 어느새
빌딩넘어 해는 또 지고 온거리 반짝이는 네온의
불빛들은 우리의 웃음처럼 거릴 맴도네 뜨거운
사랑애기 거리에 꽃피우니 얼마나 많은 사랑
준비하려나 오늘의 우리들은 내일의 우리기에
밝아오는 아침처럼 영원한 사랑

Hold my hand and follow me 아름다운 그대여
I'm the best that I can be 너와 둘이서
Hold my hand and follow me 사랑스런 그대여
I'm the best that I can be 그대를 위하여

[51] 전영록 - 마지막 손길 (이건희/이범희)

JLS-1201711.03 1982 8205-2213

불꺼진 창가에 오늘도 홀로앉아
너와나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네
세월아 돌아와 돌아와

그대는 내사랑 내사랑
마지막 그손길 그손길 어디에
따스하던 너의손길 어디갔나 바람결에 스쳐갔나
나를보던 그눈동자 어디갔나 내가슴에 맺혀있나

오늘도 맴도는 그대얼굴 그려보면
너와나의 순간을 생각하네
세월아 돌아와 돌아와
그대는 내사랑 내사랑
마지막 그손길 그손길 어디에
따스하던 너의손길 어디갔나 바람결에 스쳐갔나
나를보던 그눈동자 어디갔나 내가슴에 맺혀있나

[52] 무한계도 - 여름이야기 (신해철/심재홍)

HKR-200434.02 1989 8905-3415

여름날 햇빛속에 옛동네를 걸어가다
건널목 앞에 있는 그녀를 보았지
조금은 여윈 듯한 모습 아쉽긴 했어도
햇살에 찌푸린 얼굴은 아름다웠지
너의 손을 잡고 말하고 싶어도
소중한 기억 깨질까봐 그냥 다시 돌아서
잊어버렸던 첫사랑의 설레임과 떨려오는
기쁨에 다시 눈을 감으면
너는 다시 내곁에 예쁜 추억으로
날아들어 내 어깨위에 잠드네

[53] 노이즈 (Noise) - 너에게 원한건 (홍종구/천성일)

DYL-1018.01 1992 9210-14015

오늘도 우리 함께했지 난 또한번 느꼈어 너도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항상 난 너만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너는 언제나 너의 뜻대로만 움직였지
너에게 원한건 어려운 고백은 아냐
날 사랑하는 것 만큼 표현해 주는 것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너는 진실한 마음을 깊이 감추고 그냥 장난스런 모습으로 날 대하지만
난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날대하는 너 또한 어색한걸 난 알 수 있어

너에게 원한건 어려운 부탁은 아냐
서로 관심을 조금씩만 가져주는 것 서로 느낄수 있도록
오늘도 우린 함께 했지 난 또한번 느꼈어 너도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이제 내게서 달아 나려고 하지만 너의 마음을 내게 모두다 들켜버렸으니

[54] 박남정 - 예전에는 (송광호)

OL-3250.03 1992 9204-3925

그대 얼굴 바라보면
자꾸자꾸 내게
웃음짓는 그대미소
나를 바라보네.
처음만난 그때부터
사랑에 사랑에
빠졌나봐 그댄몰라
어쩔수가 없네
사랑의 달콤한 미소
누가 내게 말해주는가
나만이 간직한 사랑

그대는 알고있나!
여인이여 여인이여
그대 때문에 나는
여인이여 여인이여

[55] 최남옥 - 나의꿈들 (신윤철)

SPDR-345.05 1993 9301-534

난 언제나 두번째였지
난 그런 게 이젠 싫어
난 이를 꿈들이 많아
난 그 꿈들응 이를 수 있어

이제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나의 눈앞에 있는 것 보았네
나의 꿈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이루어자는 날들을 보았네
나의 꿈들이

난 가는 길이 멀어도
나의 길을 사랑하리라
높은 곳에 올라서서
나의 노래를 부를꺼야

어제의 나쁜 추억들 모두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싶어
비오는 날에 비를 맞고 에메어도
나의 곁에는 그대의 사랑이 있으니까

[56] 이주원 - 아껴둔 사랑을 위해 (박주연/손무현)

JLS-1202523.02 1992 9211-15417

기다려 내몸을 둘러싼 안개 헤치고
투명한 모습으로 니 앞에 설때까지
기다려 * 막연했던 덧없는 외출
해매임 달고 널 지켜줄때까지

찾지 못했어 내가 가야 할 길을
이 세상에 나만 홀로 던져진 것 같아

주저앉고 싶은 유혹도 많지만
알수없는 나의 미래가 너무 두려워
기다려줘 제발 난 니가 필요해
힘겨워도 꿈을 꾸는 건 너때문인걸
아껴둔 우리 사랑을 위해

[57] 강지훈 - MYSTERY WOMAN (송재준)

BDL-0020.02 1991 9110-12268

언젠가 나의 꿈속 그 속에서 느끼며
희미한 안개속에 보였었어
어두운 불빛속에 화려한 그 눈빛은
내마음 사로잡는 mystery woman

내마음 두드리는 너의 모습 그 위로
화려한 그 불빛은 계속 돌고 춤추는
불빛속에 그녀 눈빛 찾으려 언제나
나의 눈은 움직였지

친구들 전부 내가 이상하다고 모두 말을 하는 모습뿐이야
그대 내게 보이는건 사랑스런 너의 눈이야

사람들은 몰라 나의 마음이 자꾸
어려진다 느꼈을때는 나의 맘은 자꾸 그녀에게
다가가 정말

시간이 모두지나 어둠이 다가오면 화려한 그 불
빛은 사라지고 어두운 환상속에 그녀 눈빛 찾으
려 오늘도 매일매일 기다리네

[58] 이승철 - 방황 (이승철/김홍철)

JCDS-0350.01 1992 9211-15807

매일 신문에 나고 있는건 골치 아픈 사연들일 뿐.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어 이 거리로 뛰어나가보면-
술에 취해 거릴보면 어지러운 캄캄한 밤.
유혹하듯 날쳐다보는 초점 없는 시선 시선.

어딜 가야 찾을 수 있을까?

파란 넥타이, 줄무늬 팬티, 그것만이 전부는 아냐-
까만 내방을 밝게 비쳐 줄 사랑을 찾아 또 나떠나가네

[59] 강지훈 - 술취한 비둘기 (송재준/강지훈)

SCS-049.021993 9305-7856

내 가슴속 울려오는 젖은 빌딩들의 웃음소리
지쳐있는 모습보며 나를 위해 모두들 웃는걸까
웃는 나의 모습들을 아무리 보려 노력해도
이런 나의 모습들이 거울속에 비추어 지질않아

길을 걷다 스쳐가는 많은 사람속에
지금 나의 모습들도 잊혀질것 같아

이젠 모든게 변해 버린거야~~~~~
세상 모든게 달라진거~야~~~~~
변기위 생쥐 한마리
술취한 나의 비둘기

[60] 이현우 - 홍도야 울지마라 (이서구/김준영)

SIS-910311.08 1991 7612-B2586

김준영 작곡 사랑을 팔고사는 꽃바람 속에 너혼자 지키려는
순정의 등불 홍도야 울지마라 오빠가 있다
아내의 나갈길을 너는 지켜라
구름에 쌓인 달을 너는 보았지 세상은 구름이요
홍도는 달빛 하늘이 믿으시는 네사랑에는
구름을 거뒀주는 바람이 분다

[61] The Blue (더 블루) - 동화속으로 (서영진)

SPDR-329.02 1992 9211-15717

[앨범정보 가사오류신고]

저 산마루터에 아이가 집을 지으면
소들이 모여서 놀고 새들도 노래하고

긴 하루가 가고 아이가 잠이 들때면
세상은 모른척하고 엄마는 손을 잡네

꿈속에 찾아든 예쁜 그 아이 살며시 미소 띄고
저 먼곳 동화속 꿀동산위 즐거운 웃음소리에

아아 이세상 슬픔은 꿈에 잠긴채
동화속으로 나는 간다

[62] 김범룡 - 그 순간 (김범룡)

DAS-0254.03 1985 8412-8129

앨범정보 가사오류신고 그순간 잊어버려야 할 그 순간
그대는 떠나버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하나
그 전엔 너와 나 파란꿈을 꾸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사랑했었지
고요한 밤이 오면 별처럼 빛나던 그대의 눈
밤하늘 별빛처럼 웃음짓던 그대의 얼굴
아 너무나 아름답던 그대의 그 모습이여
하지만 언제인가
전화벨 소리는 자꾸만 들려오고
그 전화 받는 순간 떨리는
목소리로 헤어져야 한다는
그대의 말한마디
그대의 말한마디
난 슬픔에 빠져버렸네
까만 내눈엔 눈물이 자꾸 흐르네
까만 내눈엔 눈물이 자꾸 흐르네
까만 내눈엔 눈물이 자꾸 흐르네

[63] 신승훈 - 어긋난 오해 (김창환/천성일)

DYL-1029.09 1994 9409-9489

앨범정보 가사오류신고 때론 그랬었지 널 사랑하면서
너의 간섭이 싫었어 너를 피했었고

일부러 며칠동안 전화도 하지 않고
너의 반응을 살피며 혼자 지냈는데

어느 날 너의 슬픈 목소리 너무 힘들다는 한마디
이제는 나를 보내준다면 너는 울고 있었지

내 맘은 그런 게 아닌데 넌 나를 오해하는 거야
잠시 난 자유롭고 싶어 너와의 거릴 둔 것뿐인데

그렇게 슬피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봐
미소 띤 얼굴로 나에게 다시 한번 웃어줘
난 너를 사랑해

때론 그랬었지 널 사랑하면서
너의 간섭이 싫었어 너를 피했었고

[65] 이정석 - 젖은 날개 (박건호/계동균)

SPDR-077.03 1987 8704-3412

앨범정보 가사오류신고

해가질 저녁 무렵 이맘때 쫘엔
언제나 갈곳이 없네
이리 뻐까 그늘 빛을 밤하늘 만
오늘은 어디로 갈까
떠도는 자리는 외로운 자리
견딜 수 없어 불러보지만
진정 나에겐 사랑한 사람이 없더라

나는 젖은날개 나는 젖은 날개
그대는 그대는 비가되어 내리고 오~
나는 젖은 날개 나는 젖은 날개
아무데도 아무데도 갈수가 없네
오 우우우우~~ 음~

나는 젖은 날개 나는 젖은 날개
그대는 그대는 비가되어 내리고 우~
나는 젖은 날개 나는 젖은 날개
동우리를 동우리를 떠날수가 없네
음 우우우우~~ 음~

[66] 이승환 -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오태호)

SRB-0282.02 1991 9107-8244

여전히 내게는 모자란 날 보는 너의 그 눈빛이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알 수 없던 그때

언제나 세월은 그렇게 잦은 잊음을 만들지만
정들은 그대의 그늘을 떠남은 지금 애긴걸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았지 이젠 후회하지만
그대 뒤늦은 말 그 고백을 등뒤로

그대의 얼굴과 그대의 이름과 그대의 애기와 지나간 내 정든 날
사랑은 그렇게 이뤄진 듯 해도 이제와 남는 건 날 기다린 이별뿐

GIRL: 바람이 불 때마다 느껴질 우리의 거리만큼
난 기다림을 믿는 대신 무더짐을 바라겠지
가려진 그대의 슬픔을 보던 날 이 세상 끝까지 약속한 내 어린 맘

[68] 김현식 - 사랑 사랑 사랑 (김현식)

VIP-21026.07 1991 9101-1419

누구나 한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번쯤은 사랑에 웃고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철부지 어렸을땐 사랑을 몰라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을 알지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그 혼한 사랑 한번 못해본 사람
그 혼한 사랑 너무 많이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사랑에 마음 아파 사랑에 울고
사랑에 기분 좋아 사랑에 웃고